

# 李朝後期の 宮中服飾에 대한 研究

(宮中女人을 中心으로)

吳 今 順

光州瑞元專門學校家政科

## A STUDY ON THE COURT CLOTHING IN THE LATTE RPORT OF THE YI DYNASTY (CHIEFLY ON THE COURT LADIES)

OH KUM SOON

*Dept. of Home Economics, Gwangju Seowon Junior College*

### <目 次>

Absttact

I. 序 論

II. 女服 構造

III. 身分에 따른 服飾

IV. 結 論

### —Abstract—

The lives of court ladies were strit under the court lows.

There was quite distinct from their position.

According to their position, the clothing was different one another.

The Queen consort had a large number of various wardrobes which She was presented when chosen the Queen consort. Also she was presented nice cloths whenever festive days, an auspicious ceremony at court and birthdays.

The court ladies and attendant ladies were presented cloths when it was happy ceremony at court.

1. The formales of the Queen Consort, King's second wife and royal princesses were always yellow coat. Even though she was old, she wore colored yellow coat as long as she had a husband.
2. The Queen corsort's skirt was violet color. Occasionally she could wear red skirt.
3. Court ladies often wore a blue coat and indigo skirt which represented the coure color. But they must not wear Similar color of the Queen consort and princesse's dress.

4. Clothing were generallly silk fabrics which made in china, They setdom used cotton. They made nothing but Korean socks, under and linings. Court ladies didnt wear cotton clothes.

## I. 序 論

李氏朝鮮 五百年동안 하나의 物文化된 服飾制度面에 있어서 엄격히 그들을 지켜 내려온 것이 있다면 이는 宮中이라는 地域社會의 服飾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禮節을 崇尚하고 體統을 重視한 兩班社會의 모럴부터가 그러했고 宮中이라는 有別意識에서 오는 體統과 높은 담장으로 격리되어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그 自體의 生理부터가 이를 몇 世紀동안 계승해 내려올 수 있게 한 것이다.

宮中の 女性이란 量的으로는 內人이 絶對多數를 차지하지만 그위에 王의 正室인 妃 또는 副室인 後宮과 世子嬪宮들이 있다.

그러나 宮中服飾은 본인들은 물론 尙宮이나 內인들이 存在하지 않아 質疑할 곳도 없으므로 文獻의 記錄을 더듬어 嚴重한 宮中法 아래 각 身分에 따라 다른 紋樣 服色등을 研究할 작정이다.

## II. 女服 構造

服飾의 二重構造속에서 中國服飾을 攄용하고 있는 男服의 冠服制度가 國俗과 너무 차이남에 비하여 女服은 그대로 상층계급이 中國衣服을 攄용하고 있으면서 가장 傳統的인 衣服을 많이 입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女性은 어느 社會에서든지 保守的이기 때문이다<sup>1)</sup>.

李朝의 봉건사회에서는 女性은 주로 家政內에 靜居하여 고립적 生活를 지속하면서 育兒를 中心으로 여러가지 일에 종사했다.

李朝時代의 婦女子는 외출을 될 수 있는 한 삼가해야 했고 외출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上流婦人은 너울로써 얼굴을 가려야 했고 下流女子는 장옷과 전모로써 그 모습을 숨겨야 했다<sup>2)</sup>.

李朝初의 宮中女服으로 袷長衫, 袷隔音, 繡甫老, 赤古里, 赤尅 襪裙, 背子등이 알려져 있다<sup>3)</sup>.

현재의 禮裝저고리인 回裝 저고리와 국말까지 있던 슬란치마 저고리, 치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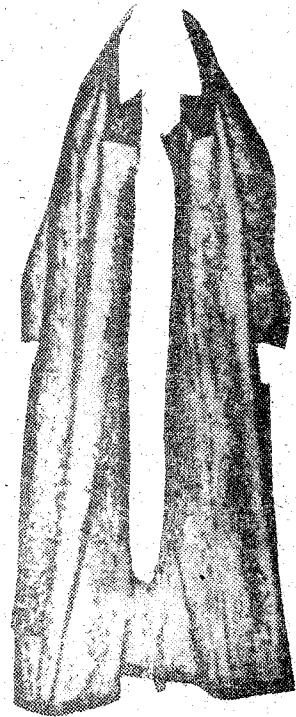


그림 1. 장옷 (한국복식사 P. 511)

1) 服飾의 二重組織은 다음 書籍들을 參照하였다.

金東旭: 李朝中, 後期の 女服 構造.

亞世亞 女性研究 卷3 집中(1964), P. 8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1973), P. 143

韓國文化史大系(N): 高大民族文化 研究所, P. 99

2) 丁堯燮: 李朝時代에 있어서 女性의 社會的 位置, 亞世亞女性研究 卷3 집中(1964), P. 44

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1973), P. 316

### Ⅲ. 身分에 따른 服飾

#### 1. 大王大妃 王大妃

國末의 王大妃의 小禮服을 보면

- 1) 당고의(唐古衣) : 초록
- 2) 저고리(小古衣) : 松花色, 보라, 粉紅, 玉色, 두루
- 3) 한삼(汗衫) : 백
- 4) 치마 : ㄱ. 옷치마 : 紫的  
           ㄴ. 겹치마(袷赤欠) : 藍  
           ㄷ. 단치마 : 多紅
- 5) 너른봉더 : 백
- 6) 대자(帶子) : 잔누비, 백, 紫的<sup>4)</sup>

너른봉더는 통이 넓은 속바지이다.

젊은 분이건 年老한 분이건 간에 다 寡居한 未之人들이니 往年의 王妃적 같이 화려한 色彩를 입지 못하게 되었다. 玉色 민저고리(화장이 달라지 않는)에 남색 치마가 平常時나 잔치때 服色이었다<sup>5)</sup> 한다.

#### 2. 王妃服

成宗代의 王妃服은 女服의 상층구조로써 宮中法服은 李初이래 明制의 賜與를 받아 그 制度가 英祖代의 國婚定例를 거쳐 國末高宗代의 여러 件記에 이르기까지 變함이 없다<sup>6)</sup>.

##### 1) 揀 擇

初揀에 참가하는 處子들의 服飾은 色彩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대개 士夫大家의 正裝대로 노랑저고리에 분홍겹치마는 다홍치마 견마기(唐衣)를 입는다고 한다. 저고리의 고름도 다홍고름이다. 그리고 노란천에 먹 글씨로 戶主의 姓名과 關係를 쓴 名札을 가슴에 달아야 한다.

##### 2) 再揀時 處子들의 服飾

候補者 20名中 再揀에 揀擇된 五人 혹은 七人의 處子들에게 내려진 옷감이 있다.

壬午正月 嘉禮時 揀擇處子 衣次

옷 옷 : 草綠, 桃榴紗 肩莫伊次

저고리 : 松花色 雙紋紗 저고리次(1作)

粉紅 花紋紬 저고리次

松花色 壯元紬 저고리次

粉紅 水禾紬 저고리次

豆綠 雲漢緞 저고리次

甫羅 水禾紬 저고리次

玉色 桃榴緞 저고리次

4) 上揭書 : P. 330

5) 金用淑 : 撥記의 研究, 郷土서술 18호, (1963) . P. 110

6) 韓國文化史大系 : 前揭書, P. 99

치 다 : 多紅 桃擺紋紗裳次

內 紬 : 1疋

細苧布 : 1疋<sup>7)</sup>

대개 松花色(黃) 저고리와 粉紅 저고리는 겹저고리 속저고리 1쌍을 이루고 있는데 豆綠과 보라색 玉色은 비교적 짙은 색깔로 豆綠이 겹저고리이고 나머지는 다 속저고리<sup>8)</sup>이다. 그리고 唐衣는 草綠이다.

### 3) 三揀時의 服飾

七人の 處子中 三人의 處子들만 三揀擇에 나오게 되는데 再擇時에 벌써 內定되어 二人의 處子에게는 옷감만 내려지는데 비하여 內定된 處子에게는 尙宮이 미리 나와 치수를 재간다음 옷을 지어서 보내진다. 한등록을 보면

三揀 미쳐 崔尙宮이 또 나오고 色掌은 文哥大福이란 內人이 나오는데 眞聖王后께서 하여 내리신 의복이나 草綠 도유단 唐저고리, 松花色 포도문단저고리, 보라 유도단저고리 한짝이요 眞紅 오호포紋緞치마와 紵布 적삼이더라<sup>9)</sup>.

이 衣服을 三揀날에 입고 입결하게 된다.

### 4) 三揀擇後의 服飾

三揀擇後의 부인궁(別宮)에 나갈적 입는 옷

草綠 織金 덩긔(篆子)圓衫

松花色 壯元紬 저고리

분홍 壯元紬 저고리

다홍 공단鳳帶

藍슈운 紋甲紗 옷치마(膝攔具)

多紅 別紋緞 겹치마

眞珠琅子

七寶簇斗里

玉蝶一雙(眞珠具)

玉丹3개(眞珠具)

古蝶一雙(眞珠具)

繡糸一雙(眞珠具)

眞珠一雙

眞玉창帶子

금슈즈帶子

珊瑚돌(眞珠具)

珊瑚梅花一雙(眞珠具)

眞珠耳 玉원항

대쥬항 대석우항

7) 金用淑 : 前掲書, P. 98

8) 金用淑 : 宮中女性生活研究 亞細亞 女性 研究 卷 4 집中(1965), P. 71

9) 한등록 : 民衆書館(1961) P. 25

신주장옥당돈

가루머리가른부전, 즈덕능금단기(진주구)

절부전 진주장 빌다도화 반즈

즈덕학직금 단기

도금니 스장옥 반즈一雙

즈덕금스 이모기

梅花丹五개<sup>10)</sup>

三 배까지도 옷옷으로 일던 전 마키(唐衣)가 新婦大禮服인 圓衫으로 바뀌어 졌으며 거기에는 金糸로 簪子를 박았다. 이위에 다홍貢緞鳳帶를 둘렀으며 남속치마 위에 다홍 걸치마 眞珠琅子에 金箔한 자주냉기를 느리고 머리에는 갖은 수식을 다하고 족두리를 쓴다. 그 밖에도 으레 兩班婦女들이 찾던 노리개들이 많다.

이같은 정식 新婦차림으로 別宮에 가면 嘉禮때까지 王妃 혹은 世子嬪이 될 교양을 쌓는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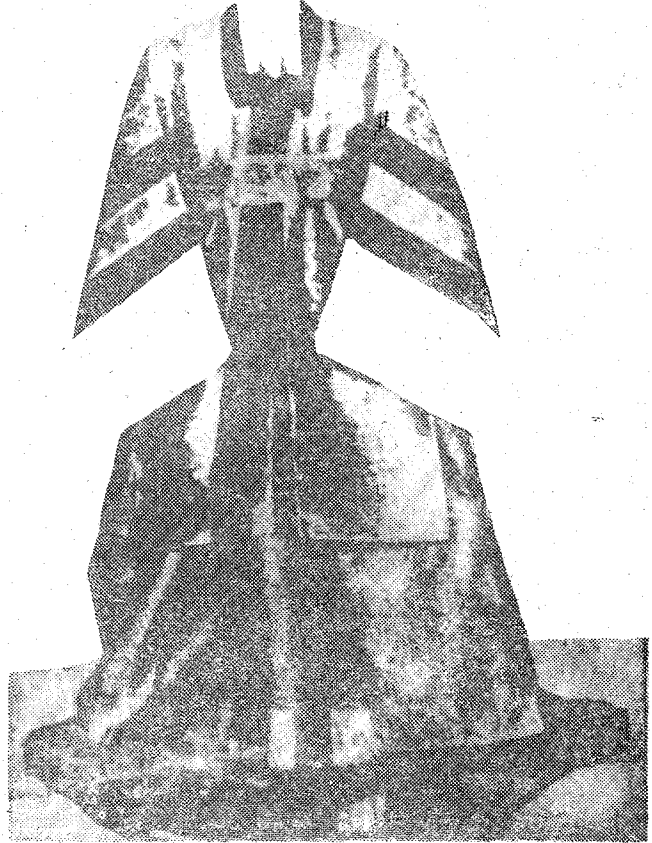


그림 2 圓衫 (한국복식사 P. 495)

王妃服에 있어서 翟衣는 宮中の 最高禮服으로 일찌기 中國制度를 踏襲하였는데 고려 太祖三年(1934)에 王妃의 章服으로 冠과 翟衣를 中國에서 보내온 것이 처음이다. 몇차례의 下邏後 永樂元年(1403)에 明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와 翟衣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간후 宮內에서 짓기 시작하였다<sup>12)</sup> 한다.

王妃服에 黃色 입는것을 禁制로 되어 있다가 高宗때 皇帝로 칭하고 王妃도 皇后로 칭하게 될 때 睿용하였다. 이는 明의 皇后가 黃色을 着用했기 때문이다.

5) 王妃의 平服

儀式때의 服色은 대체로 평상시와 冠, 嘉吉禮등으로 나눌 수 있다. 王, 王妃, 王子女들의 平服이라고 볼수 있는 名절 의복, 正月, 四月, 八月, 五月端午, 冬至날, 生日등 大事, 婚禮, 冠禮祥등과 같은 特別衣服의 두 가지가 있다.

10) 金用淑: 宮中儀記의 研究 P. 98~99

11) 上揭書: 참조

12)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1971), P.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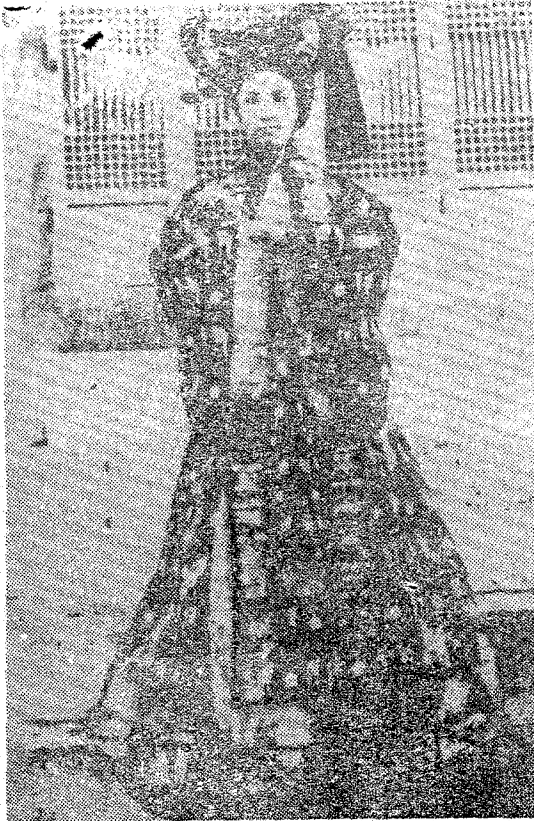


그림 3 翟. (한국복식사 P. 492)

宮中發記에 나오는 王妃의 平服<sup>13)</sup>을 보면

- 松花色 別紋緞 등소고의 1
- 분홍 유문츄라 등소고의 1
- 연지 색 주의 1
- 남 갑사 치마 1
- 남 우유증 치마 1
- 남 삼팔스듀 치마 1
- 남 핫무듀 치마 1
- 삼팔 단니의 1
- 삼팔 봉디 1

징바디는 細누비와 疋누비바지 35개(白, 숙갑사, 壯元細, 水禾, 花紋紬등으로 된 生水갑사, 吉祥紗, 생항라, 은조사로 된) 민바지(甲봉디)가 25개등 60개이며 또 細누비, 中누비, 쫄면누비, 疋등 바디수는 모두 165개 그의 흰모시, 서양사등 핫바디등 55족(550개) 합하여 715벌이며 속치마는 細누비 甲, 疋, 단니등 133벌이다.

帶子(띠)는 中누비, 세누비, 疋누비가 375개 숨을 둔 누비로 250개로 모두 625개이다<sup>14)</sup>. 바지수는 하루에 2~3개씩 갈아 입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 옷웃은 2~3번 손질하여 입지만 그의것은 한번 입고 나면 아랫것들에게 내려

진다고 한다.

여기서 細누비 中누비 쫄면누비등은 재봉틀이 없던때라 손으로 바느질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되는것이 아니고 몇달전부터 미리 준비하였던 것이다.

王妃가 平常服으로 입는 옷은 宮色인 남색치마에 옥색 저고리이며 황의청상 옥의청상 등을 비롯하여 여러색을 입었는데 아래, 위같은 색은 입지 않았다.

저고리는 삼희장을 주로 입었으며 치마단에는 膝欄, 大欄등을 놓아 입었다<sup>15)</sup>.

다음 두 치마는 물론 겹이고 민이더라도 거죽에 입는 치마는 흰색으로 안을 받쳤는데 두꺼운 비단에는 명주안을 얹은 것에는 緞나 紬종류였다<sup>16)</sup>. 大禮服(鳳衫) 활옷을 입을 때에는 금으로 용판을 찍은 두 줄을 띤 大欄치마를 입는다.

버선은 宮中用語에서 屣巾이라 한다.

王이나 王妃는 每日 버선을 한켠레씩 갈아 신는다. 이것을 1年치 모아 가지고 큰방상궁이 宗室, 高官宅 또는 內人들에게 팔고루 분비했는데 王이나 王妃의 屣巾을 얻어 신으면 저승길에

13) 金用淑: 宮中發記의 研究, P. 146

14) 上揭書: 참조

15) 石宙善: 前揭書, P. 123

16) 金用淑: 李朝後期 妃, 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亞世亞 女性研究 卷 5 集中(1966), P. 156

밝다하여 民間에서는 무던히 이것을 珍貴히 여겼다<sup>17)</sup> 한다.



그림 4 王妃 平常服  
(한국복식사 P. 504)



그림 5 활옷 (한국복식사 P. 123)

### 3. 後宮들의 服色

高宗後宮인 貴人梁氏(덕혜옹주 生母), 貴人 李氏, 貴人鄭氏, 尙宮金氏등의 의복발기를 보면 비단저고리 纁袴, 紉一疋, 洋紗一疋<sup>18)</sup> 이다.

順和宮 집조에서 後宮의 服飾은

誕日 正朝문안의는

초록적금(織金) 당저고리, 슬란치마, 슬란웃치마, 세줄노리개초 나니 큰머리 七寶는 나스 鳳 썸고디나 玉牧舟簪썸고디 싯고 玉원좁니스蓮좁은 가운데 싯나니 웃치마의 진주낭자(眞珠娘子) 취느니,

즉 초록 唐衣에 紅 膝襪치마 노리개 석줄은 당의 웃고름에 차고 머리는 갓은 수식을 다한 큰 머리 칠보를 하고 거기에다 가장 찬란한 진주낭자(주머니)를 친다<sup>19)</sup>. 後宮의 唐衣에는 兩어깨 위와 등 가슴달 네곳에 둥근 바탕에 花紋을 놓은 胸背를 달고 자주 웃고름을 맨다<sup>20)</sup>.

後宮들의 치마색은 자주는 못 입어도 다홍치마는 입을 수 있다. 홍치마는 王子君夫人이나 公

17) 上揭書 : P. 199-

18) 金用淑 : 宮中撥記의 研究, P. 151

19) 金用淑 : 李朝後期 妃, 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P. 155

20) 上揭書

主, 翁主등 王族들은 다 입을 수 있었다<sup>21)</sup> 한다.

#### 4. 王子君夫人 禮服

##### 1) 옷옷

원삼 : 초록

赤古里 : 松花色, 粉紅

당저고의 : 당적삼(唐赤古衣) (唐赤衫)

견마기(회장저고리) : 藍

##### 2) 裳

웃치마 : 藍

겉치마 : 多紅, 藍

훗치마 : 多紅

3) 바지(누비바지, 겹바지, 단바지) : 白

4) 단속곳(겹) : 白

5) 帶子(누비, 겹, 단) : 白<sup>22)</sup>

大欄치마는 妃, 嬪들에게 限하고 公主나 王子君夫人 같은 外命婦<sup>23)</sup>들은 着用 못하였다<sup>24)</sup> 하며 宮中에서 웃치마란 一般的인 概念과는 달리 속치마를 말한다. 즉 밑에서 부터 올라와 먼저 입는 것이 웃치마 그 위에 겹치마로써 입는 것이 치마이다. 웃치마(속치마)는 주로 남색을 입는다.

#### 5. 公主 翁主服

덕혜옹주 5세때 平服(丙辰 四月 翁주아가시 生辰 衣服 발기)

粉紅 삼팔 저고리

松花 別紋 속사 저고리

松花 高길상사 저고리

분홍 高길상사 저고리

색동 관사 저고리

색동 관사 두의

다홍 더포 적삼 2

다홍 생고사 치마



그림 6 唐衣 (덕혜옹주 한국복식사 P.501)

21) 上揭書 : P, 156

22) 金東旭 : 韓國服飾史 研究, P, 333

23) 外命婦 : 大殿乳母, 王妣母, 女王, 王世子女, 宗親의 妻, 文武官의 妻로서 品階가 있는 者.

24) 金用淑 : 李朝後期 妃 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P, 156



- 분홍 고깃상사 치마  
 분홍 삼팔정 치마 2  
     숙향라 갑떡치마  
 분홍 주점문사 음무주의 1  
 빅 유문나사 주의 1  
     삼팔정 단속곳 1  
     양누비 바지 1  
     삼팔누비 바지 1  
     정삼팔 바지  
     옥양목 겹바지 2<sup>25)</sup>

10세 미만의 公主 翁主의 衣服을 보면

등의복(胴衣服) 赤古里 : 松花色, 粉紅, 藍, 眞粉紅

적삼 : 粉紅, 多紅(저포, 생고사)

저고리 : 松花色, 粉紅, 色同

치마 : 粉紅

단속곳 : 白

바지 : 白

足巾(버선) : 白<sup>26)</sup>

여기에 唐衣를 입는다.

## 6. 尙宮의 服飾

宮中에는 內命婦로서 正一品에서 順次로 從四品까지 嬪, 貴人, 昭, 儀, 淑儀, 昭容, 淑容, 昭媛, 淑媛은 實相은 모두 王의 副室(妾)이며 正五品 尙宮 奏變宮에 이르는 者는 宮女로서 各 各 그 名稱이 표시하는 바의 職分을 맡는다<sup>27)</sup>.

宮女란 宮中女官의 명칭으로 尙宮以下의 宮人職을 말한다. 尙宮은 宮女中 가장 높은 職分이다. 또 한편 宮女란 王이 계신 大殿외에도 大妃殿 또 大王大妃殿 東宮등에는 물론 자기 獨立生計를 영위하고 있는 女人들까지도 포함된다<sup>28)</sup>.

冠禮후 15년이 경과하면 이제까지의 嬪娥님으로 불리우던 女宮은 尙宮이 된다. 嬪娥님은 冠禮후 尙宮 奉爵以前의 女官으로 보라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다.

宮女로 선출된 후 대궐에 입궐하기 전에 宮中에서 衣次가 내리는데 이는 치마와 저고리, 바지감으로 된 明緇一疋이다. 저고리는 집에서 염색을 하여 노랑저고리에 남치마였는데 高宗이 皇帝가 된 후로는 王妃 이외에는 노랑저고리가 禁制되었다. 그리고 분홍저고리였다<sup>29)</sup> 한다.

國婚 王妃嘉禮時 발기(金尙宮, 千尙宮 옷 발기)

玉色 고단 호장저고리

25) 金用淑 : 宮中撥記의 研究, P. 148

26) 金東旭 : 韓國服飾史 研究, P. 333

27) 經國大典 : 法制處, P. 24

28) 金用淑 : 李朝後期 宮中 內人生活의 研究, 亞世亞 女性研究 卷 7 집중(1969), P. 157

29) 上揭書 : P. 166

- 玉色 삼색 호장저고리
- 玉色 고단 덧동옷
- 玉色 숙고사 덧동옷
- 玉色 숙고사 호장저고리
- 보라 삼팔 호장저고리
- 藍 甲紗 치마
- 藍 언결문사 치마
- 白 갑사 옷무족이
- 빅 슈닌 옷무족이
- 白 삼팔 단바지
- 白 삼팔 누비바지
- 白 별문고사 단속것
- 白 은나 단속것
- 南松 숙고사 토시
- 다홍 고단 즐치부금
- 삼팔 허리띠(색)
- 삼팔 누비 허리띠
- 玉色 양단 덧동옷
- 남 대단 치마<sup>30)</sup>

宮色인 남치마에 玉色 회장저고리를 주로 입었으며 다홍주머니를 지닌다. 妃, 公主, 翁主와 비슷한 服色을 할 수 없었으며 尙宮옷에는 金箔을 찍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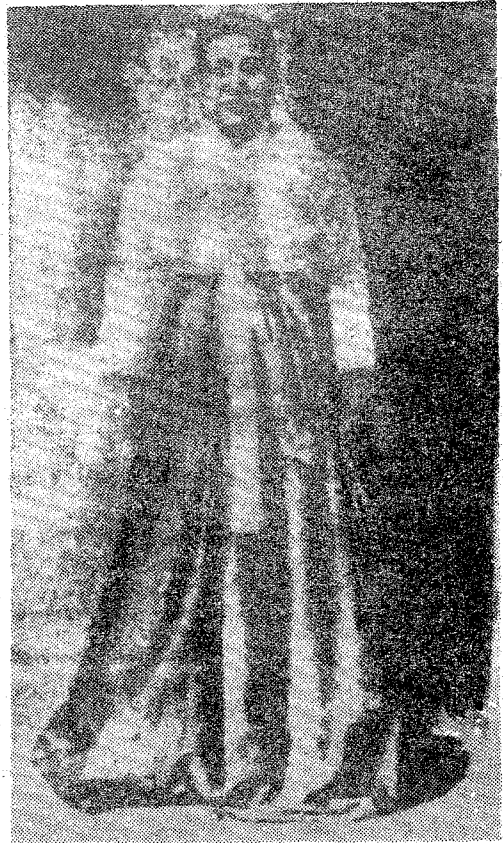


그림 7 상궁복 (한국복식사 P. 506)

## 7. 內人の 服色

內人은 尙宮以下의 女宮을 말한다. 正五品 尙宮以下의 宮人들은 各己 소속처소에 따라 또 말은바 所任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公的인 意味에서는 이들이 女宮 또는 內人-나인이라고 불리우는 正式 宮女인 것이다<sup>31)</sup>. 내인들은 거의가 연줄로 들어오게 된다.

李朝末의 女宮制度를 보면<sup>32)</sup>

(事務分掌에 따른 內人の 名稱)

- 1) 至密內人: 至密이란 王, 王妃, 東宮등이 거처하는 주변을 말하며 이는 하나가 아니고 各 殿宮이 獨立的이다. 所任으로는 平素에 위를 侍衛하는 外에 그 주변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한다. 4~5세때 入宮한다.
- 2) 針房內人: 王, 王妃의 衣襟을 위시하여 王宮에서 所要되는 各種 衣服을 製造한다. 6~7세때 入宮한다.

30) 金用淑: 宮中搬記의 研究, P. 154~155

31) 金用淑: 李朝後期 宮中 內人生活 研究, P. 156

32) 上揭書

- 3) 繡房內人 : 宮中에서 所要되는 服飾 또는 裝飾物에 쓰이는 繡를 놓는 곳이다. 6~7세때 入宮한다.
- 4) 洗水間內人 : 朝夕으로 王, 王妃등의 洗水하시는 물, 沐浴하시는 漆蠶에다 더운물을 붓고 작은 대야를 한데 받쳐 드린다. 그러나 御前까지는 못가고 至密內人이 받아 들여간다. 그밖에 手巾, 洗手器皿등을 洗濯하며 內殿庫간에 出入한다.
- 5) 菓房內人 : 朝夕수라 以外の 生菓 特殊한 煎菓라든가 茶食 즉 其他 食物의 재료를 맡아 거행하고 수라床을 올릴때는 안소주방과 같이 한다.
- 6) 燒酒房內人 : 內燒酒房과 外燒酒房이 있어 外燒酒房에서는 眞殿茶禮舉行, 進酌, 進饌, 會酌時에 進大膳, 誕辰에 進大膳, 賓客接待등을 거행한다. 王子女의 百日, 誕日의 白雲기를 돌리는데 所任을 맡는다.
- 7) 洗踏房內人 : 王, 王妃의 衣襪를 洗濯한다.

그 외에 대궐안에는 잣베갯모같은 자질그레한 일들을 하고 방안에 장식으로 수건걸이, 베갯난자, 그릇받침 등을 만드는 고얏방이란 것이 있으며 버선만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足巾房, 푸새한 옷감을 다듬는 일만을 하는 擣砧房이 있다.

內人은 至密소속이든 어디든간에 上下番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였다. 非番일때와 當番일때의 服色은 다르다. 아침 食前의 服飾은 內人으로서의 正裝을 하는데 남치마에 玉色회장저고리에 그위에 草綠唐衣를 입는다. 아침과 저녁으로 갈라서 上下番을 할 때에는 아침에는 어임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저녁에 올라갈 때 자려 가브로 조진머리를 빗고 올라 간다<sup>33)</sup>고 한다.

#### 國婚 嘉禮때 內人의 服飾<sup>34)</sup>

- 唐저고리 草綠 桃榴緞
- 저고리 玉色 고단
- 치마 藍 오복쥬
- 바지 보라 노방쥬
- 단속곳 白
- 白은나 一疋
- 白壯元絀 二疋
- 綿絀 二疋

응희四年 영친왕(英親王)이 14세 때 日本서 잠시 귀국했다 再渡日 하던때 내린 빌기이다.

入宮後 15년이 경과하면 신랑도 없는 결혼식을 치루게 되는데 이때의 服飾은 어임머리를 올리고 노리개를 꿰고 남겉치마에 玉色 회장저고리(꿀동, 깃, 고른자주색)에 草綠唐衣를 입고 그위에 圓衫을 입는다.

### 8. 婢子의 옷

- 결당저고리 : 耳鵝靑絀 具(具)
- 치마 : 耳鵝靑具絀 具(具)
- 자근치마 : 紬水 具(具)

33) 金用淑 : 李朝後期 妃, 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P. 186

34) 金用淑 : 李朝後期 宮中 內人生活研究, P. 155

丁未年(응희 2年) 純宗과 王妃의 嘉禮때의 발기로 王妃 衣次끝에 붙여 적은 것<sup>35)</sup>이다.

대궐과 친정宗親들 사이에 問安편지가 오고 가는데 이는 封書라 하여 이것만을 배달하는 婢子가 따로 있었다. 封書를 나르는 婢子를 글월 婢子라 하여 戰笠에 아래 위 새까만 옷을 입고 그들은 궐내를 무상출입하는 牌까지 가지고 있었다.

한등록을 보면, 길에서 글월婢子가 흑단장하고 섰으니 놀랍기 비할데 없더라<sup>36)</sup>.

婢子는 襪裙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sup>(37)</sup>.

### 9. 무수리(水腸)

대궐의 各 處所에 한명정도씩 잡역을 맡는 婢子女人이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물고기, 불뎀기 기타 하역을 맡았다.

충충한 푸른 치마에 저고리(연두색과 청색 중간색)를 입었다.

### 10. 방아이 또는 각심이

各房에 잔심부름하는 女人으로 보통 평복에 쪽을 지었다.

### 11. 宮中 禮式에 참석할 外命婦로서의 兩班 婦女 옷

당저고리 : 초록

저고리 : 豆綠

저고리 : 玉色

저고리 : 보라<sup>37)</sup>

매체로 兩班 婦女服은 玉色 또는 豆綠 옷저고리에 보라속저고리 남치마임을 알 수 있다.

## IV. 結 論

以上으로 宮中女人들의 身分에 따라 다른 服飾을 資料 提示를 中心으로 整理하여 보았다. 宮中女人의 服裝은 一年中 誕日과 正初 問安에 가장 盛裝하였다. 誕日은 王, 大王大妃, 王大妃, 王妃등에 한하며 自身의 誕日에는 王, 王妃도 禮服아닌 平服을 한다. 妃, 公主, 翁主는 伏中에 까지도 唐衣가 着用되었는데 그 이유는 體統과 品位를 지키며 內人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妃, 太子妃외에는 용슬란치마를 못입고 양반가의 婦女子는 약간의 金箔을 박거나 박지 않고 입었다.

그리고 宮中에는 私私服을 입지 못했다. 한등록에서 보면,

내 어려서 고이 입어 보지 못하되…… 中略 내몸이 이리되니 先妣 눈물을 내오시고 「고운옷을 입히지 못하고 이 치마를 하여 주려 하였더니 宮禁에 들으시니 私私衣服을 못입을 것이니 내 해입히고 싶은 것을 이루리라」 하시고 再揀후 三揀擇 밋지 아니한 즘음에 이 치마를 해 입히시고 슬퍼하시니 내 울고 입었더라<sup>39)</sup>

35) 金用淑 : 宮中撥記의 研究, P. 155

36) 한등록 : 民衆書館, P. 23

37) 金東旭 : 李朝後期 女服構造, P. 87

38) 金東旭 : 韓國服飾史 研究, P. 336

39) 한등록 : 民衆書館, P. 27

宮中女人들은 宮中에서 내린 服飾을 하여야 했다.  
여러가지 資料를 주신 石宙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1976학년도 서원전문학교 학술 연구 계발에 의한 것으로 학교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 參 考 文 獻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世亞文化社, 1973.  
李朝中後期の 女服構造, 亞世亞女性研究 제 3 集中, 1973.  
金用淑, 宮中撥記의 研究, 郷土서울 18호, 1964.  
李朝後期 宮中內人 生活研究, 亞世亞女性研究 제 7 集中, 1968.  
宮中女性生活研究, 亞世亞女性研究 제 4 集中, 1965.  
李朝後期 妃, 嬪들의 四節服飾 및 衣次, 亞世亞女性研究 제 5 集中, 1966.  
經國大典(上), 法制處, 1962.  
丁堯燮, 李朝時代に 있어서 女性の 社會的位置, 亞世亞女性研究 제 3 集中, 1964.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晉齋, 1971.  
韓國文化社大系(N), 高大民族文化研究所  
한등록, 民衆書館, 1961.  
韓國의 歷史(9 권), 敎文社, 1963.  
컬러女性大百科, 歌美書宮, 1974.